

2015 1.11 주님 세례축일

제 1 독서 : 이사야 42,1-4.6-7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제 2 독서 : 사도행전 10,34-38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복 음 : 마태오 1,7-11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지난주일 말씀드린대로 집에 가서 “Linda, Linda, listen to me!” 를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있게 웃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의 세상은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가 없고

오직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Cup Cake 만 먹겠다고 보채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도 한번 반성을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 벅차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고, 나는 그저 나약한 인간에 불과 한데.....’** 또한 어떤 신자 분들은 저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신부님은 교회안의 사제 이시지만, 저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신부님은 우리의 생활을, 우리 삶의 어려운 점들을 전혀 모르 십니다.’** 고 저에게 지적을 하시곤 하십니다. You Tube 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Cup Cake 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이는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먹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저는 EBS 의 인문학 특강 **‘과학이 철학을 만나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인문학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물질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살아 왔는데.... 그러면 행복하여질 줄 알았지만 물질이 아무리 충족하여져도 마음속에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지면 행복 할 줄 알았는데..... 가졌다는 사람들이 즐길 만큼 즐겼는데....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그것으로 행복한 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철학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한 동기입니다. 강남에서는 11 억짜리 아파트를 가졌고 6 억을 손에 짊 수 있는 사람인데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자님이 중용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또 공자와 맹자 이외에도 동양철학에서 물질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에 대하여 수천년전에 이미 이야기 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것을 아시고 인간이 누구라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 질수 있는지를 다 아시고 말씀하신 분이지만, 공자나 맹자 그외의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의 속성을 속속들이 철저히 탐구하여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양 철학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느냐하면 물질적인 행복은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행복은 오직 인간을 더욱 목마르게만 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정신적인 행복만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론이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여 주어도 자식들은 듣기 싫다고 합니다. 아마 부모가 되어 보아야만 그 마음을 이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의 제 1 독서 이사야서에서 **“ 일어나 비추어라.”** **일어나 빛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하시지요? “ 빛이 너에게 왔다.”**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뽑으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에게 빛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 일어나 비추어라 ! 그리고, 이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빛으로 멀게하라 ! ” 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 두려워 하지마라 ! ” 내가 세상 것에 집착하면 할 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세상것에 집착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나밖에 모르게 됩니다.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기분에 대해서 생각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나 부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면, 내 이웃이 사랑스럽고, 때로는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행복을 안겨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 납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느님의 뜻이 바로 사도에 의해서, 하느님의 성령께서 교회 밖으로도 보내어 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 독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읽어 보시면 베드로사도가 고르넬리우스의 집에 들어가지요, 사실 베드로사도 자신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성령께서 내리심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느님께서서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깨어 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안에 가득찬 욕심과 욕망들이 나갑니다. 공자님이 가르치시는 중용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동양철학이 제 머리에 쏙쏙 들어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양철학에 대하여만 공부를 하였지, 동양 철학을 공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이 서로 공통점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법정스님의 책을 통하여 주자학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건, 어떤 문화를 지닌 민족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안에는 두개의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욕심이고 하나는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안에 들어 왔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것은 신학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양심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와서 양심을 내 쫓아버렸다는 것이지요. 그 욕심을 우리 마음안에 가질때에, 욕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느냐 하면 못채운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마음을 열때에 욕심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다시 채워지고 그 양심은 또한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양심과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철학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 하나 ” 라는 것, **하느님이 한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 또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분과 함께 하나가 될때에 행복함을 느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신학은 플라톤철학, 아리스토텔레스철학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내가 힘들고 아플 때에 그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아내에게서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더욱 불행해 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느낄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 내가 누구냐 ? ” 를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 나는 누구인가 ? ” 나는 누구인가? 를 찾다보면 결국은 하느님께로 도달합니다.** 그리스철학,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를

찾고 나를 찾고 하다가 설명이 안되는 것에 도달합니다. 바로 그곳이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줍니다. 동양철학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하 였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다 아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단적으로 불교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가 되었지만, 원래는 철학 입니다. 인생철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전 하다 발전하다가 나중에는 부처님을 신격화 합니다. 왜냐? 더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윤회설을 가지고 신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것이 무엇입니까? 열반의 세계입니다. 윤회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불교의 윤회를 하다가 도가 트이면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극락,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많은것을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점은 무엇이나 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보고 내청만 들어 주십시오! 하시지 말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자존심을 깨부십시오. 깨부시면 부실 수록, 내가 편해 집니다. 내가 편해지면 내 이웃들이 편해지고, 내 이웃들이 편해지면, 그들이 나에게 편하게 잘 대해 줍니다. 물론 살다보면 마귀같은 이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쓸데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귀도 천사가 됩니다.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통해야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기념을 통해서 우리형제 자매님들은 그분의 불림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뿐만이 아니라 세가지 의무도 함께 받았습니다. 즉 **왕직과 사제직과 예언직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세가지 직무에 대해서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나는 그 중요한 직무들을 일상생활속에서 갈고 닦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일어나 비추어 내 이웃들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들의 고통이 위안 될 수 있고, 그들의 가난함에 보탬이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님들을 뽑으셨고, 1 독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로 받아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이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4.6-7<또는 55,1-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2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3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고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4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6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빛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7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29(28),1 ㄱ과 2.3 ㄱ과 4.3 ㄴ과 9 ㄷ-10(◎ 11 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8<또는 1 요한 5,1-9>

그 무렵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36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37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38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1

그때에 요한은 7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9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1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